

[고발] 의정부 엠마트의 조직적 폭력 및 시 행정의 만성적 직무 유기 2026.3.

1. 대상 업체 및 기관

- 업체명 : 의정부시 소재 (주)인선 유통 엠마트
- 관련 기관 : 의정부시청 (민원 처리 담당 부서 : 소상공인팀)

2. 사건의 핵심 요지 (시스템적 결함)

본 건은 단순한 직원의 불친절을 넘어, 매장 내 다수의 직원이 특정 고객을 타깃으로 삼아 정보를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조직적 보복 응대**'를 가한 비윤리적 영업 행태에 관한 것임.

또한,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태만과 카르텔 의혹을 고발함.

3. 주요 피해 사례 (연대기적 요약)

- 조직적 동선 방해 및 조롱

매장 이용 중 특정 캐셔와 인포 직원이 결탁하여 고객의 이동 경로를 고의로 방해하고, 비아냥거리는 등 집단 따돌림(Bullying) 분위기를 조성함.

- 실명 기반의 보복 응대

대표번호로 관리자 연결을 요구하자, 사무실 직원(조*미)이 사건의 경위도 파악하기 전 고객을 식별하며 시비를 걸고, 퇴사한 전 관리자를 들먹이며 허위 사실로 고객을 모욕함.

- 행정 시스템의 민원 회피

지자체(의정부시청)는 110(권익위 정부민원)을 통한 정식 민원에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을 미준수하거나 '전화 시도 후 즉시 끊기' 등 기록 남기기용 수작으로 민원인을 기만함.

4. 제보의 목적 및 요구사항

이 사건은 지역 기반 유통업체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고객에게 심리적 가해를 입힌 전형적인 사례임.

- 조직적 불링 조사

특정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매장 전체의 고객 응대 시스템과 관리 감독 부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지자체 유착 의심 해소

민원인을 지치게 하여 포기하게 만드는 지역 행정의 '**에너지 착취형**' 응대 방식에 대한 공론화를 요청함.

-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해당 업체의 공식적인 사과와 조직 문화 개선안 작성을 요구함.

* 참고

시계수리. 이게 무슨 날벼락.(소비자고발센터 처리)

이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임. (피해자가 왜 뒤치다꺼리를 해야되나-다이소)

어이없는 명절 선물세트 판매. (판다팜 의정부)

이용하기 불편한 동네 마트

※ 뭐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려면 실제로 국민(피해자, 민원인)들이 당한 일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의미가 없다.

고객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그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이들의 실체를 제대로 봐야 한다.

의정부시 범죄 안전지수 7년째 하위 등급 ..." 5대 범죄 취약한 도시 " - 2026.1 경기북부이슈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는 4등급 그대로 2019년부터 4~5등급 못 벗어나

▶ 이 통계는 '지성이 없는 자들의 높은 비율'과 '범죄적 행태에 둔감한 지역 수준'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지표임.

지금껏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데이터는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안전 취약 지역의 특수성이 빚어낸 집단적 도덕 해이'임을 가리키고 있다.

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상식이 거세된 집단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치러야 했던 지적·정신적 비용'이었다는 점임.

이곳에 공개된 글들은 피해자가 겪어온 서비스 및 행정 폭력의 아주 일부에 불과함.

미처 글로 옮기지 못한 수많은 사건과 그 과정에서 자행된 그들의 기만은 이미 지역 곳곳에 고착화되어 있다.